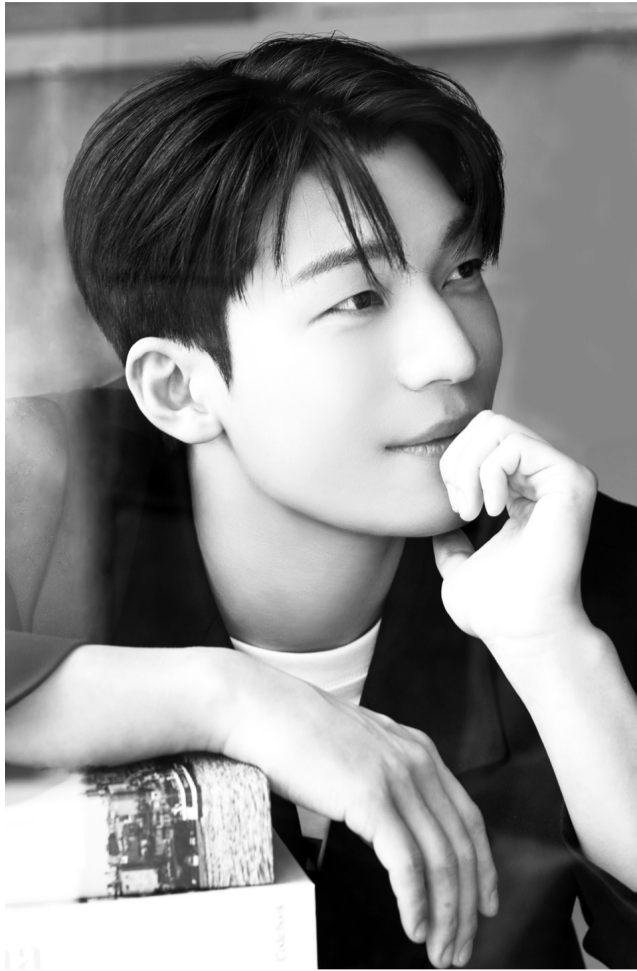


위하준 “이준호는 요즘 시대 젊은이…당돌하고 저돌적”



“이준호는 한마디로 ‘돌아아’ 같았어요. 전형적인 멜로 드라마 남자주인공과 다르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요즘 시대 젊은이 같지 않아요?”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졸업’의 이준호(위하준 분·사진)는 당돌하고, 저돌적이다. 혹 들어오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능글맞은 태도로 절로 웃음을 짓게 만든다.

그러나 여느 로맨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처럼 마냥 설레지 않은 않는다. 가끔 절없는 객기를 부리는 모습이 어려 보이기도 하고,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제멋대로 굴 때면 밉상으로도 느껴지기까지 한다.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남자주인공 이준호를 연기한 위하준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준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캐릭터지만, 대본을 봤을 때는 진짜 웃기는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준호는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고등학생 시절 과외 선생이자 첫사랑인 서혜진(정려원)과 같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자주 의견이 엇갈린다.

하루는 참다못한 서혜진이 “이렇게 날 자극하고 모욕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고 소리치는데, 이준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백년해로”라고 답한다.

위하준은 이 대사를 언급하며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준호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교육관을 갖고 부딪히는 장면이나,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 등 긴 호흡의 대사가 많았는데, 끊어가기에는 하나같이 의미 있는 대사였다”며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친구도 안 만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대사와만 달달 외우면서 지냈던 것 같다”고 했다.

위하준은 이준호와 은근히 닮은 구석이 많다고 했다. 그중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돌적으로 직진하고 돌파하는 모습을 꼽았다.”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위하준은 “고등학생 때 처음 상경했는데, 전혀 간다는 소식에 가장 아쉬워한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었다”며 “학생회 활동도 했고, 내신 성적으로 열심히 챙겼기에 학교에선 저를 놓아준 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만류에도 배우라는 꿈을 이루겠다고 아버지와 고모에게 편지 한 장 쓰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며 “결국 연극·영화학부에서 연극을 전공하게 됐는데, 등록금이 아깝

다는 생각이 들어 1년 만에 자퇴하고 군대에 갔다. 전역하고 나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어 또다시 ‘팬텀에 헤딩’을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준호의 철부지 같은 모습도 사실 저와 닮은 것 같아요. (웃음) 연기할수록 ‘맞아, 나에게도 이런 낙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지’하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감됐고, 준호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했죠.”

이번 작품에서 10살 차이 나는 정려원과 멜로 호흡을 맞춘 위하준은 “제가 한 작품 중 가장 기대하면서 방송일을 기다렸던 때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케미(호흡)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며 “누나 덕을 크게 본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려원 누나는 20년 넘게 연기를 해온 선배인데, 한 번도 촬영장에 늦게 온 적이 없고, 대사도 늘 달달 외워 왔어요.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고, 저도 덕분에 각성했죠.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 한명 한명까지 모두 다 편하게 대해줘서 모두가 누나를 좋아했어요.”

2015년 영화 ‘차이나타운’으로 데뷔한 위하준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면서 단번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18 어게인’ 등에서 이나영, 김하늘과 호흡을 맞추며 ‘연하남’의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왜 자주 연하남으로 캐스팅되는지 모르겠다”며 “아마 나이보다 성숙해 보여 특유의 케미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밤 잘 자주는 예쁜 누나”에서 손예진의 동생 역으로 출연했던 위하준은 ‘졸업’이 안판석 감독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작품이다.

“처음에 이준호 역으로 작품 제안을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지난 5년 동안 쉬지 않고 작품을 했는데, 노력의 결실을 본 기분이었죠”

위하준은 “감독님이 ‘졸업’은 제가 앞으로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며 “그 말씀에 감동했고, 저 역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대중이 더 좋아할 법한 멜로의 남자 주인공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로맨틱 코미디도 해보고 싶는데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웃기거든요.”(웃음)

/연합뉴스



‘탁쇼 2’ 스크린으로 만난다

18일, 광주 등 전국 CGV 상영

지난해 성공리에 막을 내렸던 ‘2023 연막 단독콘서트 TAK SHOW 2: TAK’S WORLD’(탁쇼 2·사진)가 스크린에서 다시 펼쳐진다.

최근 연막 소속사 ‘어비스 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올 2월까지 6개월동안 진행됐던 ‘탁쇼 2’가 오는 18일 광주를 포함한 전국 CGV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영화에서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볼 수 있었던 무대 위 화려한 순간은 물론, 무대 밖의 흥미로운 비하인드 모습들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연막은 이번 영화에서 관객들을 위해 추가로 제작한 영상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예매는 오는 10일부터 CGV에서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성 주연 범죄 드라마 ‘커넥션’ 자체 최고 시청률 14.2% 종영

지성 주연의 범죄 스릴러 드라마 ‘커넥션’(사진)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7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영된 금토드라마 ‘커넥션’ 최종회(14회)는 시청률 14.2%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의 자체 최고 시청률 11.1%를 뛰어넘은 것으로, 작년 6월 종영한 ‘남반탁터 김사부’ 시즌3 이후 방영된 SBS 드라마 중 가장 높다.

마지막 방송은 마약 혐의로 체포됐던 주인공 장재경(지성)이 위기를 벗어나 다시 수사가 나서고, 사건의 모든 진상을 밝혀내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징벌하는 과정이 다뤄졌다.

/연합뉴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일본 오리콘 싱글 1위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사진)의 일본 싱글 ‘지카이’(誓い)가 오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에서 사흘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6일 밝혔다.

오리콘이 전날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카이’는 지난 2일 차트에 1위로 진입한 뒤 사흘 동안 정상을 지켰다.

‘지카이’는 발매 첫날에만 30만982장이 팔려 그룹의 일본 싱글 첫날 판매량 신기록을 경신했고, 사흘간 33만1938장

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날 일본 지상파 NTV ‘더 뮤직 데이 2024’(THE MUSIC DAY 2024)에 출연해 신곡을 선보이는 한편, 일본 가수들과 협동 무대를 꾸민다.

이후 12일 TV아사히 ‘뮤직 스테이션’, 13일 TBS ‘음악의 날 2024’ 등 일본 음악방송 출연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